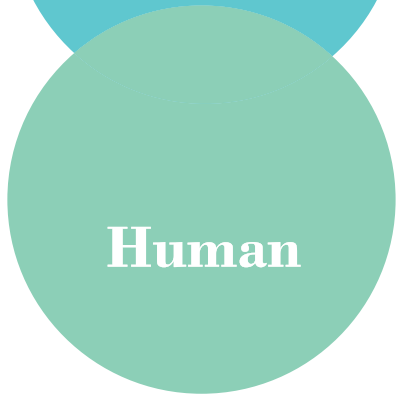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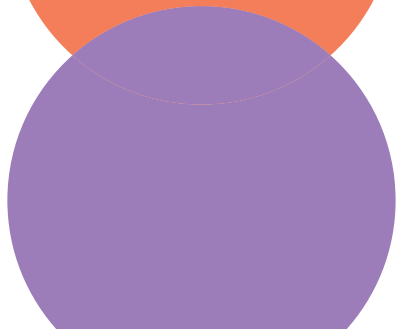
Suwon  
StoryG



Human



Culture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수원스토리G’  
이야기를 읽다





## 문화와 시민이 함께한 도시 이야기 '수원스토리G'

수원스토리G는 수원이야기(STORY)를 기록(Grapher)하는 아카이빙 전문가그룹으로, 아카이브(archive)는 오랜 세월동안 보존해야 하는 가치 있는 자료의 기록 및 보관파일을 말한다. 올해는 21개 사업, 604개의 프로그램을 영상촬영 70회, 사진촬영 50회, 편집영상 23편으로 담아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원스토리G 결과보고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시민들과 함께한 1년여의 과정의 기록을 통해 2021년 문화도시 수원을 되돌아보 고자 한다.

## 문화특화지역 4년차, 예비문화도시 1년차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도시 지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고, 법정문화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12월 23일에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수원은 10여 년 동안 마을 만들기, 인문도시, 평생학습도시, 생태도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도시로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시민자치 역량,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생활권 별 불균형과 시민들의 단절된 삶의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로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 120만 도시의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역의 삶과 연계된 건강한 문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문화도시 수원은 돌봄과 환대, 존중과 배려가 있는 '서로를 살피는 도시', 도시공동체 갈등, 원도심 쇠퇴와 노령화, 기후위기와 생태문제 등의 '문제에 맞서는 도시'를 향한다. 수원의 문화도시 비전은 역사적 가치에서 출발하되,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시민적 역량과 창조적 역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담고 있다.



## 들어가며

2021년 예비사업단계에서 수원은 문화도시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기초적인 바탕을 만들며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 마을, 지역, 생태를 핵심가치로 재정립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시민 가치는 다채로운 문화실험이 시도되면서 시민 문화력이 강화되고, 자율적인 시민들의 대화와 실천이 모여 서로를 환대하고 포용하는 인문도시 수원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한다.

마을 가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생활권역별 자율적인 도시문화 커뮤니티와 거점 공간의 적극적 네트워킹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 가치는 수원화성과 행궁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도시 자원을 조사 아카이빙 하면서 로컬 콘텐츠의 가치를 발굴하고 창제작과 유통을 지원하여 지역의 가치를 시민 자산화함으로써 문화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한다.

생태 가치는 전지구적 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도시로서 거점 공간과 마을 단위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실험이 가능한 생태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생태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결법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상생의 플랫폼을 도시 간 형성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한다.



# Contents

들어가며 • 2

## Chapter 01 시민가치

### 문화도시 협치구조 형성

- ／ 수원 문화도시 거버넌스 • 10
- ／ 수원 문화도시X도시재생 포럼 • 15
- ／ 오! 경기 문화도시 포럼 • 18

### 문화인재 양성지원 '수원은 학교'

- ／ 시민문화기획자 양성과정 • 23
- ／ 청년전통문화 기획과정 및 실버로컬스토리텔러 과정 • 25
- ／ 학습공동체 지원과 활성화 사업 • 26

### 시민주도 R&D '수원은 실험실'

- ／ 실천활동 '씨티플레이어' • 29
- ／ 수원형 리빙랩 • 34
- ／ 워킹그룹 활동 지원 • 38

### 문화 다양성 지원 '웰컴 투 수원'

- ／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 활동 • 45
- ／ 공존테이블 • 48

## Chapter 02 마을가치

### 문화도시 거점공간

- ／ 문화도시 동행공간 지정 • 52
- ／ 생활문화공간 공모지원사업 • 59
- ／ 지동 아트포라 • 64

### 도시문화 커뮤니티

- ／ 아파트학교 '네모의 꿈' • 68

### 공간실험

- ／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 76
- ／ 플랜B 라이브러리 기획 운영 • 80

## Chapter 03 지역가치

### 인문도시 아카이브

- ／ 도시기록단 양성과정 • 87

### 조금 다른 도시여행 • 90

### 로컬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

- ／ 메이드 인 수원 • 93
- ／ 직거래 문화장터 '수문장' • 94

### 인문도시주간

- ／ 사전프로그램 '문화도시 실천실험' • 99
- ／ 본프로그램 '만남과 마주침, 서로를 바라봄' • 100

### 수원공공예술

- ／ 교동예술실험단 • 105
- ／ 도시충:동 예술충:동 • 107

## Chapter 04 생태가치

### 도시 내 생생문화 플랫폼

- ／ 수원형 리빙랩:생태교통마을 • 113
- ／ 월간공간실험 • 114



Chapter  
01

# 시민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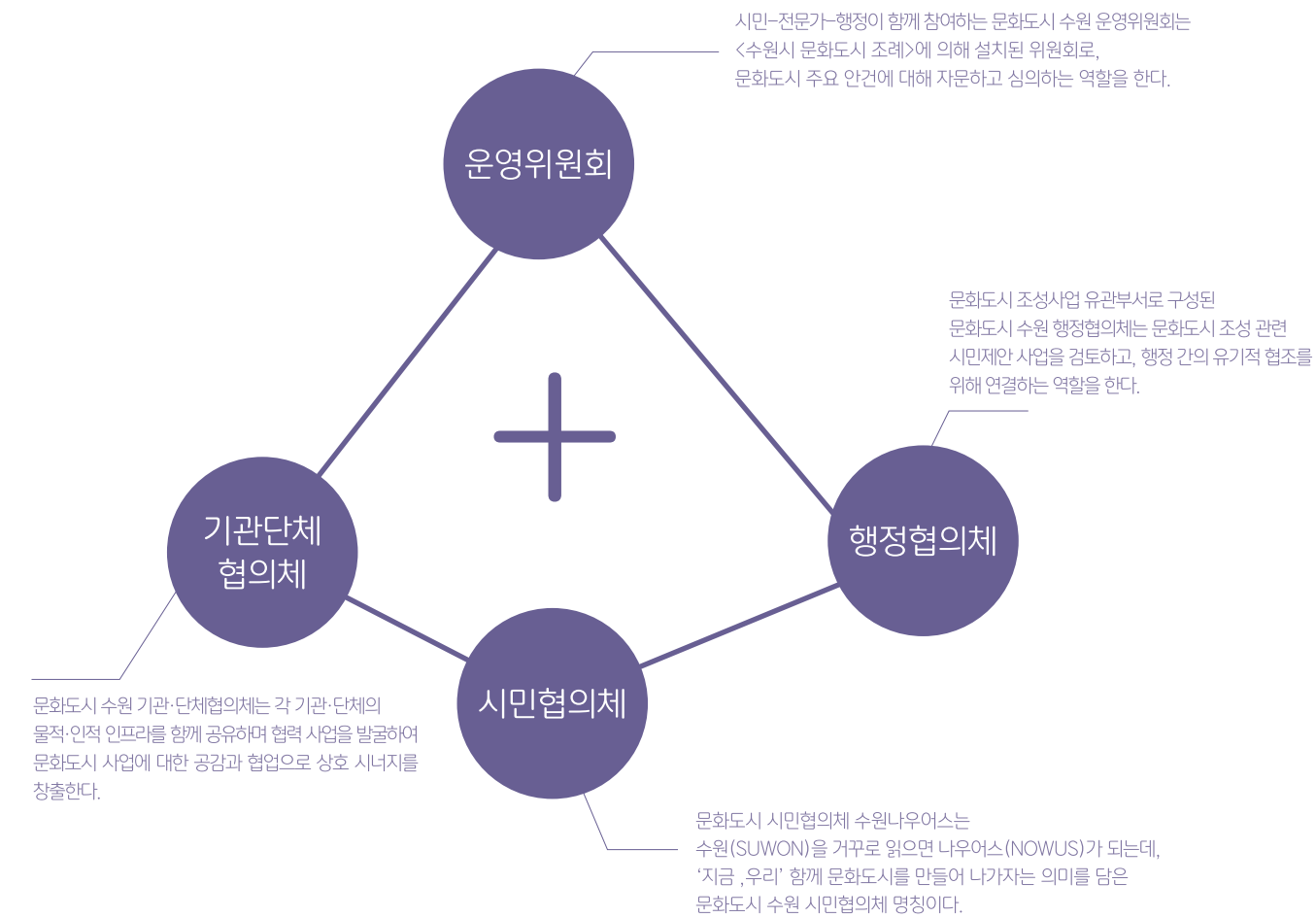


# 문화도시 협치구조 형성

문화도시 수원은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문화도시센터, 시민협의체, 기관단체협의체, 행정협의체, 기획자문그룹 등을 구성해 왔다. 지역의 다양한 사업 간 역할과 협력 체계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찾고, 문화도시 사업이 수원 내 각 조직 및 활동으로 흡수되어 지속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수원 문화도시 거버넌스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거버넌스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수원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 운영위원회

8월 31일 수원시청에서 문화도시 수원 운영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출하고, 문화도시 수원의 지향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체와 수요자가 분리되지 않고 시민이 문화적 주체가 되어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상욱 위원장은 “문화도시 기획과정에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고, 시민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과제와 내용을 구상하며 적극적인 홍보 및 소통의 방법론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시민협의회

지난 7월 9일 경기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시민리더 30인이 모여 시민협의회 나우어스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시민리더는 올해 말까지 분과운영·워킹그룹 심의·사업 모니터링·시민협의회 의견 검토 및 사업 반영 등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수원이 문화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의 눈빛을 담고 있었다.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주도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도시 수원 자문단장 최정한 대표의 ‘문화도시와 시민거버넌스’ 강의와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이선옥 센터장의 ‘문화도시 수원 추진방향’ 소개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협의회 발족식



시민협의회  
수원나우어스 정기회의



시민협의회 수원나우어스 해단식



11월 10일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시민협의회 나우어스의 정기회의가 진행되었다. 문화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안건으로 열린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생활권역별 의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방안 등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하반기에 구성·운영된 시민협의회 나우어스 시민리더 1기 해단식이 12월에 열렸다. 시민리더들은 한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내년의 활동을 기약했다. 이 자리에 참가한 시민리더는 “수원에서 오래 살았다. 살면서 수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나우어스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 행정협의체

6월 발족한 문화도시 수원 행정협의체가 11월 9일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상황 공유뿐 아니라 부서별 사업과 문화도시 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유관부서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는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관련 시민제안 사업을 검토하고 행정적 협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협의체



### | 기관단체협의체

12월 6일 문화도시 수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관·단체들이 수원문화재단에 모였다. 지난 5월 발족식 이후, 두 번째 진행된 자리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간의 연계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문화도시 수원을 향한 기관·단체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업무공유회 이후에는 수원문화재단-수원시 국제교류센터 간의 업무 협약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문화도시 수원을 함께 만들어갈 기관단체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된다.

기관단체협의체 업무공유회



### 수원 문화도시X도시재생 포럼

수원 문화도시X도시재생포럼은 도시재생뉴딜 사업과의 연계 및 협업 추진을 통해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진행하였다.







12월 1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수원 문화도시×도시재생 포럼'은 '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길 찾기'를 주제로 하였다. 20여 명이 모였고, 기조발제 '문화도시와 문화적 도시재생'은 최정환(공간문화센터 대표), '수원 도시재생의 성과와 과제'는 허현태(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씨가 맡았다. 사례발표로는 '시민이 기록하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최서영(도시기록단 기획·운영, (주)더페이퍼 대표), '시민이 일구어가는 도시의 활력' 장동현(수원나우어스 시민리더 도시다양성 분과장,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고래등 24시 마을공유소' 운영), '시민이 만드는 도시의 미래 : 2040 도시기본계획 주요 방향(원도심 도시재생 중심)' 유순혜(도시정책시민계획단 운영위원장, 한신대 교수) 씨 등이 발표하였으며, 종합토론 '문화×도시×재생 연계·협력 방안 : 주체, 공간, 아카이빙, 거버넌스'는 이선옥 수원문화도시센터 센터장이 좌장으로 이끌어 나갔다.





## 오! 경기 문화도시 포럼

수원시는 경기도 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지자체와 함께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통해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들 간 상생 및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 경기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하였다. 6월 25일, 오후 7시부터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열린 '오! 경기 문화도시 포럼'은 문화도시 정책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 법정문화도시 정책방향 및 실천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경기권 13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권 문화도시·예비도시·준비도시 간 더욱 일상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은 지역문화와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문화도시란 문화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라며 문화도시 지속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 조건들을 제시했다. ‘문화도시 넓게 읽기’라는 주제를 발제한 지금중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문화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의 정주성 제고, 삶의 질 향상, 시민 역량 강화, 인재 유입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다.

사례발표 참석자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장은 문화도시 추진현황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주요 평가내용은 안정적인 추진체계 구축, 행정지원, 시민참여, 민간부문 협력, 타도시 협력 외에 공공사업 수행의 적정성,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특성화 전략 등임을 강조했다. ‘원더테이블오산담:多’라는 제목으로 사례발표를 한 임현호 오산문화재단 오산이음문화도시센터 팀장은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은 사람을 잇고, 가치를 잇고, 문화를 잇고, 지역을 잇는다”는 주제로 오산시에서 진행되는 문화도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문화도시를 만드는 대화와 실천의 힘’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한 이선옥 수원문화도시센터장은 “시민 스스로가 인문실천을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밝히며, 올해가 새로운 과제를 가진 한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문화인재 양성지원 '수원은 학교'

문화인재 양성지원 '수원은 학교'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인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주제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자 도시 전체를 일상화된 배움과 도전,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중장기 문화형성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시민들이 문화기획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시민문화기획자 양성과정과 세대 별로 지역을 다시 보고 새롭게 발견해내는 청년전통문화기획 과정, 실버로컬스토리텔러 과정, 그리고 다양한 취향과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학습하는 시민들을 발굴하는 학습공동체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 시민문화기획자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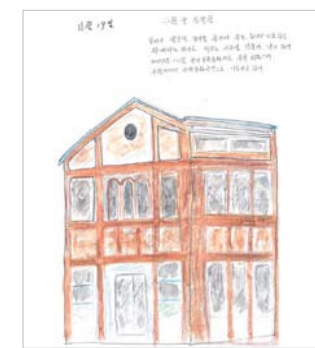
수원 내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중 문화기획 분야에 관심과 향후 활동의지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의제별 시민 주도의 문화기획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수원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의제를 바탕으로 문화기획자들이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고 도출한 기획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과 도시의 문제에 대응하는 문화 창작자이자 소비자로서 시민 역할과 가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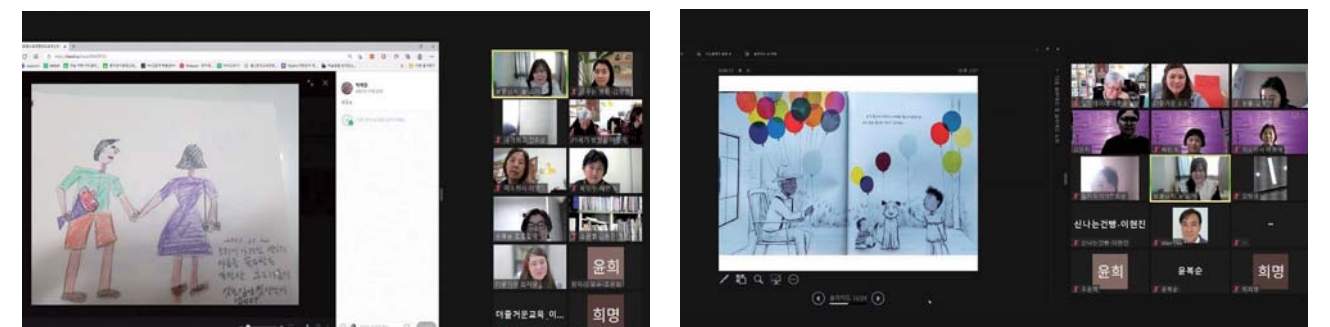




### 청년전통문화 기획과정 및 실버로컬스토리텔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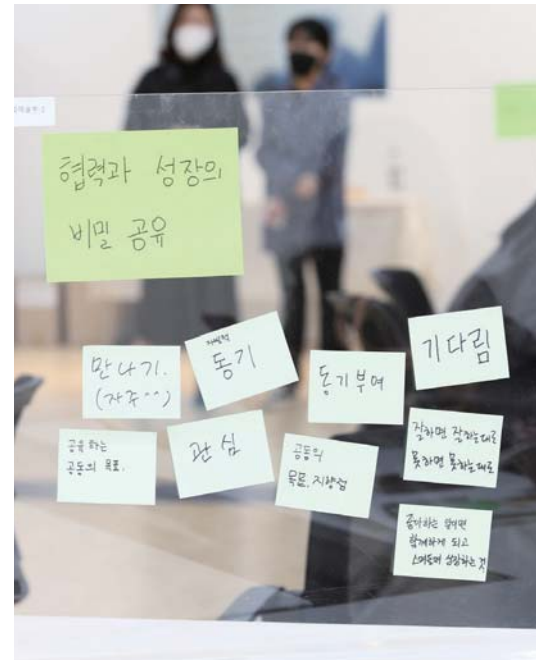
수원의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가 소통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새로운 시각을 기르고 잊혀져가는 공간과 사람, 추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수원>, <화성>, <역사>, <전통>, <로컬> 등의 주제를 통해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며,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위해 세대 간에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상호 지원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2021년에는 그동안 시민문화인재 양성과정에 참여한 청년전통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기획과 운영, 정산과 결과보고, 굿즈 제작 등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며 문화기획을 실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실버스토리텔러는 워크숍을 통해 수원의 공간과 사람을 드로잉하여 향후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토리카드를 제작해보는 과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시민문화기획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문화도시 수원의 사업을 이끌 주체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였다.





### 학습공동체 지원과 활성화 사업

120만 명의 시민이 살아가는 수원의 곳곳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이 활동의 주체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진화해 나가며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여 새로운 형태로 도시의 무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수원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학습공동체의 활동 현황을 조사·수집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198개의 공공기관 및 작은도서관, 학습모임과 학습동지 등을 통해 총 46개의 학습공동체 자원을 수집하였다. 또 공유회를 통해 논의된 지원 방향과 활동의 욕구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체에 대한 단계별 지원 방향과 네트워크,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원의 다양한 모임이 인문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는 인문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시민주도 R&D '수원은 실험실'

시민주도 R&D는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 실천활동 '씨티플레이어', '리빙랩&워킹그룹 지원'으로 구성된다. 탐색-실험-평가로 이어지는 '시민주도 R&D' 사업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고 문화적 해결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살아있는 도시 실험실을 지향한다.



### 실천활동 '씨티플레이어'

실천활동 '씨티플레이어'는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의 다음 단계로, 시민의 자발적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이다. 올해는 85개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가 지역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6개의 프로젝트가 실천활동 씨티플레이어로 선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아파트 수국 정원 만들기

대화모임 '가치있게 같이 살기'는 아파트 주민 모임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해 화단과 유휴부지에 주민들과 수국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향후 화단 조성을 위한 취미,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수국을 심던 모임 대표 모방원 씨는 "수국은 보통 6월에서 8월까지 피는 꽃인데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피어나며, 땅의 성분을 잘 조절하여 심으면 예쁘게 피어난다."며, "가치있게 같이 살기"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터가 넓어서 수국을 심게 되었다. 아파트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대화모임 '뜨개모임'은 코로나19로 지친 아파트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활동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이번 실천활동을 통해 모임원들이 뜨개용품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모임 대표 이정우 씨는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모르고 지내다가 5년간 열 명 정도가 모여 뜨개질을 해 왔다. 그전엔 뜨개질한 물건들을 개인이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수세미, 목도리, 가방 등을 독거노인들께 나눠드린다. 잘 뜨지는 못해도 그분들이 우리가 만든 뜨개용품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32단지 溫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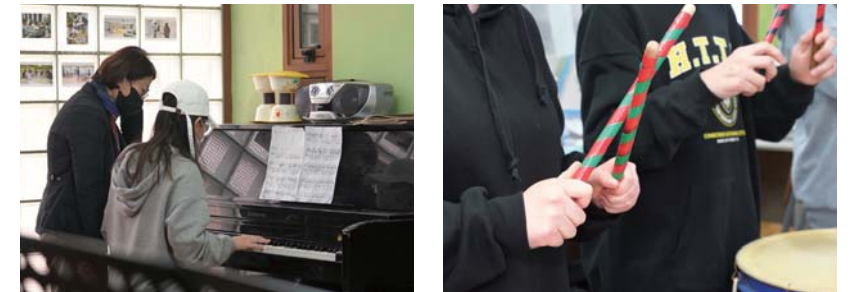
대화모임 '마실가자'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 시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모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실천활동명은 이름하여 '뜯고 맛보고 즐기고'다. 마실가자 모임의 최정숙 씨는 "수원이 갈비로 유명한데 갈비꼬치를 만들어 노인정 어르신들께 맛을 평가해 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이다. 갈비꼬치를 만들어 수원을 많이 알리고 싶다." 고 말했다.

뜯고 맛보고 즐기고 (GO)



대화모임 '소중한친구'는 지역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방안을 논의한 모임으로, 이번 실천활동은 'Go! Music Healing'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기타, 우쿨렐레, 피아노 등을 연주하는 학생들은 미래의 음악가로 성장할 듯한 진지함이 엿보였다. 이에 대해 운영자는 "Go! Music Healing'은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끼와 생각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음악이 가장 밀접하기에 다양한 악기로 이뤄진 앙상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앞으로의 진로와 전공 등을 생각해 보며, 친구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Go! Music Healing





### 수원형 리빙랩

수원형 리빙랩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살아있는 도시 실험실을 말한다. 시민모임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4회기를 맞이한 씨티메이커스 모임원들에게 문제해결 방안을 실행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형과 지역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매칭해주는 컨설팅형의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였다.



대화모임 '치매예방교육팀'은 모임활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법을 터득하였고, 이를 지역에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다. 모임을 통해 전 모임원이 시니어두뇌훈련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속적인 치매예방 홍보와 자원봉사로 치매안심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금빛 꿈 하나 되는 마을 만들기'는 치매 예방 활동을 위한 문화체험과 교육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와 치매 예방 네트워킹을 이루고자 한다. 참가자 김옥분 씨는 "치매예방교육을 마치고 소규모 봉사활동을 3년째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계시는 광고카페거리 주민 어르신들을 위한 오감운동, 손끝자극 등 다양한 치매예방법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한혜라 씨는 "40일 동안 주 2회씩 치매예방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오늘은 동네잔치 겸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갖도록 후원해 준 문화재단에 깊이 감사한다.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금빛 꿈 하나 되는 마을 만들기







금빛 꿈 하나 되는 마을 만들기



‘두드려’는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의 뜻을 가진 전직 교사들의 동아리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씨티메이커스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문학을 교류했으며, 지역에서 인문학을 통해 청소년과 노인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번 ‘징검다리’ 프로젝트에서는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각자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였다. 회원이자 강사인 이미현 씨는 “2018년도에 모임을 시작했다. 청소년과 노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어르신들의 커리어를 활용하여 문화를 공유하고,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고 말했다. 참가자 이청재 씨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아, 그런 면이 있었구나’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집에 가면 권위를 버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에게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 한편, 29세 청년 오경택 씨는 “어르신들과 세대 간 격차를 느껴서 참여하게 됐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고 말했다.

징검다리





## 워킹그룹 활동 지원

워킹그룹은 '문화도시 파트너'로서 도시가 가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통해 문화도시 수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도시 의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수원 기반의 단체를 대상으로 9월~11월에 인문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 토론회, 북콘서트 등 소규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도시 수원 굿즈 개발 및 제작 활동을 하였다.



'시크릿컴퍼니'는 '모두가 비밀스럽게 마음속에 간직한 문화'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전문예술가로 이루어진 문화창작단체이다. 시나위의 다성적 효과처럼 문화도시 관련 인문에 우리 도시를 표현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채우는 <문화도시 일상시나위> 렉처콘서트를 진행했다.

문화도시 일상시나위





'탐조책방'은 새와 관련된 200종이 넘는 책과 쌍안경을 판매하는 동네서점이자 도심 속 탐조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태문화기획 단체이다. <도시에서 새를 만나는 5가지 방법>을 주제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탐조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박임자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새가 항상 자리한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고 말했다.

도시에서 새를 만나는 5가지 방법



'책고집'은 인문강좌를 통해 모두가 책과 함께 행복을 일구어 나가며,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인문독서공동체이다. 수원의 핵심콘텐츠인 정조와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창의적인 상상력에 기반하여 재해석하는 <정조와 과학, 인문학> 강연을 열었으며, 이 외에도 문화도시 동행공간과 협업하여 북 토크,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0회의 인문 소통 시간을 가졌다.

정조와 과학 인문학





'소요컴퍼니'는 수원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드는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작하는 단체이다. 문화도시 수원의 상징 컬러를 표현한 <문화도시 수원을 담은 토이카메라>를 제작하여 수원의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낼 수 있는 체험적 요소를 제공하였다. 굿즈 제작을 총괄한 허성완 대표는 "문화도시의 가치와 수원의 특성을 제품에 녹이기 위해 노력했다. 저희 카메라가 문화도시 수원을 즐기고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문화도시 수원을 담은 토이카메라





## 문화 다양성 지원 '웰컴 투 수원'

'웰컴 투 수원'은 문화 다양성의 가치 발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수원 신규 입주인, 예술인, 이주 배경 청소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6월~10월에 실시하였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다양성 관련 주체들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문화 다양성이 수원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여러 지역 활동의 주요 요소가 되는 작동 체계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 활동



10월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아트센터에서 연극, '수원시 다양한 연극단'이 펼쳐졌다. 시민들의 연극 제작 과정 참여를 통한 문화 향유와 연령·세대 간 소통이라는 두 가지의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는 '13월' 장한솔 대표는 "약 4개월간의 기간 동안 작품에 대한 리서치 및 연구, 개발 과정을 포함하여 창작물을 완성하고, 공연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연습 과정에서는 연극 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극놀이, 연극교육 등 연극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연극단'은 문화 다양성이란 카테고리 안 모든 요소들을 다룰 수 있기에 올해 1기는 연령·세대를, 내년에는 더욱 발전한 프로그램으로 타 요소들을 다룰 수 있다. 이는 수원시민들에게 문화 다양성 속 다양한 분야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으며 수원시에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13월(장한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고 추억이 없겠는가, 풋풋하고 멋진 리즈 시절이 없었겠는가. 수원 광고 공공 실버주택에서 살고 계신 꽃할매들은 흑백 사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신다. 10월 27일, 광고 노인복지관 분관 두빛나래에서 열린 '더 즐거운 교육(북 콘서트)'의 풍경이다. 코스모스, 동백, 장미, 국화 등 다양한 꽃 이름

으로 불리는 꽃할매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담아 100%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 내는 그림책을 만든다. 꽃할매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 자서전 제작, 그림책 출간 및 북 콘서트 & 전시회를 순조롭게 마쳤다.

8주 동안 열심히 그림책 만들기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옥중 씨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 물만 마시고 산 적도 있었고, 세상에 왔다가 표적도 없이 갈 줄 알았는데 그림책을 만들고

보니 눈물이 줄줄 흐른다." 고 말했다. 박옥희 씨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처음엔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이 붙었고, 정말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며 미소를 금치 못했다. 김양순 씨 또한 "가슴이 벅차고 떨린다. 그림책을 우연히 공부하게 되어, 처음엔 뭔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성장하는 나를 발견했다. 색칠을 조금 못해도 '그대로 하세요'라는 말로 힘을 실어준 선생님께 감사하다." 고 말했다. 한편, 최지영 대표는 "어르신들이 8주간 만든 결과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어느 해보다 가장 멋진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은 어르신들이 직접 그리시고, 글은 녹취와 메모를 하여 정리하였다." 고 말했다.

더 즐거운 교육(북 콘서트)





## 공존테이블

공존테이블은 2021년 문화 다양성 지원사업 <웰컴 투 수원> 참여자와 함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점, 인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라운드테이블이다.

'차별'과 '다름'의 차이는 무엇일까? 10월 30일, 실험목장 AGIT에서 공존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차별'과 '다름'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고정 관념에 대한 접근과 경계 허물기로 대화를 이어간 참석자들은 성별·인종·신체 정신적·지역 분야로 활동한 11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차별과 다름에 대한 생각을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며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참가자들은 수원 문화 다양성 8가지 지표 중 민족, 성소수자,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였다. 권지영 참가자는 타지역 출신의 시점으로 본 수원 출신 작가의 작품 감상을 통해 그들의 작품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김정희 참가자는 난민·성소수자·성폭력 등 소재를 다루는 책과 기사, 영상 자료를 통해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김세연 참가자는 북한 이탈민들과 수원시민 문화공동체 교류를 통한 북한 이탈민 공동체 활성화 바탕 마련, 이정원 참가자는 몸이 말하는 이야기를 탐구하며 타인의 시선 대응과 몸의 말에 대한 문화적 접근, 김소라 참가자는 심리학책을 매개로 토론하는 심리독서모임으로 내적치유 유발, 이유나 참가자는 '그림책으로 보는 성평등'을 주제로 '책 속의 표현', '일의세계', '사회적 인정' 3가지 키워드를 삼아 다양성의 공존을 지향하는 활동, 남해복 참가자는 노인의 시선에서 정치적, 종교적, 출신지역, 성별 등 다양한 차별에 대한 현 주소를 알아보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Chapter  
02

# 마을가치





# 문화도시 거점공간

광역급 대도시 수원의 원도심-신도시 불균형 문제 해소와 시민과의 접촉면 확대를 위해 단절된 삶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생활권 내 공공, 민간의 문화공간을 '동행공간'으로 지정, 운영하였다. 이 공간들은 5개 생활권역(화성생활권, 영통생활권, 광교생활권, 복수원생활권, 서수원생활권)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 내부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동반성장 모델을 만드는 거점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문화도시 동행공간 지정

문화도시 동행공간은 도시의 시민 의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민간과 공공의 공유공간, 공방, 서점, 교육시설, 작은도서관, 카페, 갤러리 등 일상의 문화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지역 주민, 예술인, 기획자 등 활동 주체들이 일상과 도시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터전이 되어 준다.

참좋은수다 동행공간사업



협동조합 참좋은수다가 운영하는 '참좋은공간'에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용품 제작 등 생활기술과 공예를 기반으로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행복한 산책, 행복한 동행' 기획자의 말을 들어보았다. "학부모와 자녀, 여성과 평등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가를 만나고, 활동가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화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도록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산책, 행복한 동행



10월 29일 6시, 영통구에 있는 동네 서점이자 공방 '아뮤컨셉'에서는 송재형 대표와 새 지도를 만든 박임자 씨, 사진작업을 하는 박경민 씨, 음악을 하는 이아리 씨 등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떻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사진을 찍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고 기타의 음률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이러한 활동들이 문화도시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면적은 좁지만 폭넓은 대화의 보따리가 펼쳐진 아뮤컨셉 동행공간은 푸른 바닷물이 출렁이는 바다에 와 있는 듯, 청춘의 푸른 꿈들이 힘차게 노를 젓고 있는 공간이었다. 송재형 대표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문화재단 동행공간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문화도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료 활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실천하는 삶





10월 30일, 벼터온(ON)에서 운영한 '마을, 스위치를 켜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마을 주민들 간의 소통 기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펼쳤다. 기획자는 "삼십 년 전, 어느 어른이 마을을 위해서 쓰라며 땅을 기증해 주셔서 그곳에 건물을 지어 벼터온을 만들었다. 일반주민들로 구성이 되다보니 어떤 모습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만나야 하는지 생각하던 중, 문화재단에 동행 공간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됐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재능기부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 고 말했다.

마을, 스위치를 켜다!



10월 30일, 인도래 작은도서관에서는 '인도래 창작소'라는 이름으로 마을의 학부모와 자녀층을 대상으로 한 대화모임 운영을 통해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을 주제로 공동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생활소품 제작을 함께했다. 기획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도래 작은도서관은 주인이 관리하는 주민공간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의 의도와 부합하여 더욱 의미 있는 주민공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도래 창작소







나나스토리

11월 16일, 랄랄라하우스에서 열린 '나나스토리'는 수원에서 살아가는 30~40대 청년과 여성들이 '나를 발견하는 예술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매 시간 본인의 이야기를 글, 향수, 아크릴화, 디자인실습, 셀프심리치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획자는 "정 작가님의 책을 기반으로 하여, 심리치유의 다섯 가지 방법을 주제로 심리강연이 이뤄졌다. 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참가자 분들이 말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 생활문화공간 공모지원사업

수원시 내 문화공간 중 지역 주민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대상으로 9월~11월까지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등 일반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진입을 돕는 매개자 활동, 생활문화 영역을 바탕으로 한 창작, 모임, 학습, 마을공동체 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11월 5일, '만화마켓 : 행궁동 코믹스'가 행궁동 근대미술관에서 열렸다. 만화에 대한 역사와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나만의 만화 캐릭터를 만들고 짧은 이야기를 덧붙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나리오 작업으로 나만의 만화를 만들고 아트상품 제작과 전시도 운영했다. 근대미술관의 작가 서은주 씨는 “근대미술관의 ‘데’자는 디글자에 어이를 써서 근대미술관입니다. 여기서는 만화 수업을 하는데 만화도 그리고 전시도 합니다. 일반시민과 행궁동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린 그림으로는 아트상품도 만듭니다. 영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데 수원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어, 양질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만화마켓 : 행궁동 코믹스



슬기로운 취미생활

11월 6일, '슬기로운 취미생활'이 북봉공방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시대 생활 속 적합한 취미를 찾기 위한 가죽공예, 라탄공예, 마크라메 활동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북봉공방의 이혜옥 강사는 “등나무줄기를 엮어 만드는 목공예수업인데 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여 오시는 분들이 배운 공예를 다른 곳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공예 중심의 마을을 만들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꿈무지개스튜디오 생활공예 창작나눔교실'은 11월 16일, 라풀라풀에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모여 전통 매듭 장신구와 손바느질을 통해 우리 옷 배자를 만들어 보는 클래스를 운영하며 문화적 소통과 재능 나눔의 기회를 가졌다. 라풀라풀의 황윤희 대표는 "디자인 공예 일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 및 다문화가정과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통매듭과 배자, 가방 등을 만들고 수를 놓은 과정이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말했다.

꿈무지개스튜디오 생활공예 창작나눔교실





지동  
아트포라

지동아트포라는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업실이자,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갤러리를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원데이클래스, 전시, 마켓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아트포라 예술장터, 시장 프로젝트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다.







2021년 지동 아트포라 입주작가 정기전 '수원화성 : 스며들다'가 행궁길 갤러리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펼쳐졌다. 참여작가는 강선형, 고영익, 김연희, 박지연, 이경화, 정예빈 씨다.

수원화성은 우리의 삶 속 도시와 시민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어우러지는 하나의 공간이자, 구역마다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수원의 대표적인 명소다. 지동 아트포라 입주작가의 감성으로 해석한 '수원화성 : 스며들다 展'을 통해 올 한 해 아트포라만의 작품 활동을 소개하였다.





# 도시문화 커뮤니티

아파트학교 '네모의 꿈'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도시문화 일상 학교의 활동 주체를 확장하여, 구성원이 함께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가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생활공동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같은 생활공동체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시민이 기획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운영의 자발성 확보, 일상의 공간이 배움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함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파트는 이제 도심 속의 거주 공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때론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지낼 때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학교 '네모의 꿈'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이웃이라는 주민들의 작은 꿈터를 찾아가 보았다.

아파트학교  
'네모의 꿈'



국악으로 힐링하기



10월 18일, 백설마을 주공 2단지 주민회의실에서선 어르신들의 신나는 국악놀이가 펼쳐졌다. 몸으로 표현하는 춤, 장구 가락과 민요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어르신들은 춤 동작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스트레칭하듯 가볍게 몸을 움직였다. 뽀글이 가발, 몸빼바지, 족두리, 검정고무신 등 다채로운 복장으로 육자배기에 맞춰 춤을 추고, 아리랑 노래도 부르며 촛불놀이도 곁들였다.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소녀가 되는 듯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다. 김순애 강사는 "어르신들께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고, 희망과 에너지를 드린 것 같아 기쁘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오신다. 눈썹을 붙이고, 예쁘게 화장을 해드리니 고운 모습에 모두 기뻐하십니다." 고 말했다.







건강과 힐링의 하와이 춤, 훌라

10월 23일에 찾아간 광고중흥S클래스 아파트 내 GX룸에서는 하와이 훌라춤 동작이 한창이었다. 각각의 화려한 색상의 치마를 입은 참석자들은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 손과 발을 유연하게 움직였다. 40대부터 70대까지 친구가 되어, 춤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참가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물결이 흐르듯 나비가 사뿐히 날아다니듯 하다가도 마지막 동작으로 손을 펼치는 장면은 사뭇 경건하기까지 하다. 대표활동가 박미희 씨는 “건강에 좋고 무리가 없는 운동이다. 몸치였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운동효과도 있어서 좋다.” 고 말했다. 한효진 강사는 “문화예술로 확대 됐으면 좋겠다. 백세 시대에 누구나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할 텐데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집에서 연습할 때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힘이 된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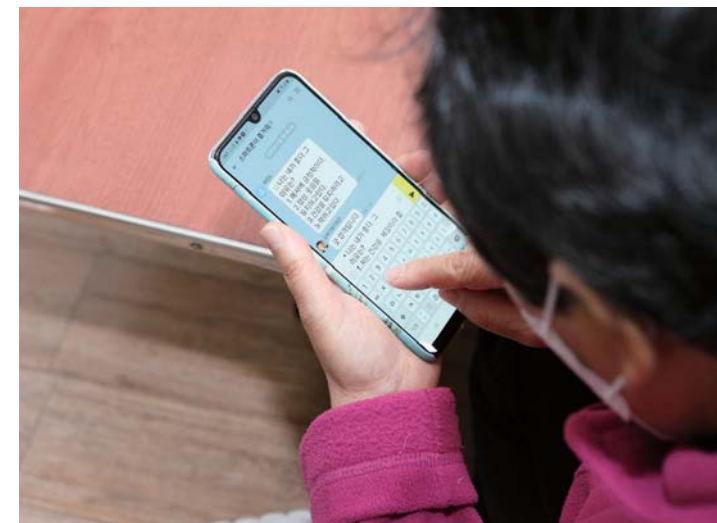


스마트폰이 즐거워

11월 4일에 열린 코로롱하늘채아파트의 '스마트폰이 즐거워'는 다양한 정보로부터 소외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실습과정이었다. 20회에 걸친 수업은 스마트폰의 다



양한 기능을 익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검색 및 활용하며, 아파트 단지의 어르신 평생학습관 전경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영관 강사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방법을 모르는데 다양한 기능을 배웠다. 문자 보내고 받기, 사진촬영방법, 녹음하는 방법, 단체카톡방 만드는 법, 캘린더 일정 만들기 등 하루 두 시간씩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출석률 백 프로인 분이 많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흥미로워 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고 말했다. 대표활동가 김재섭 어르신 역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하면 전화를 받고 걸고만 했는데 사진을 찍고 복사해서 보내기, 사진 속에 문자 넣기 등 새롭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 고 말했다.





노인복지 향상과 공동체 상생

11월 9일엔 광고 푸르지오 월드마크에서 '노인복지 향상과 공동체 상생'이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로, 텃밭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에 관련된 문제와 관심사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19회에 걸친 프로그램은 매회 주제를 바꾸며 진행되었고, 9일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 학대 예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남해복 강사는 "갈수록 고령화는 심화되고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지표를 보며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고 말했다. 대표활동가 진종언 씨도 "이제라도 남의 일이라 방치하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며 학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초고령 사회의 노인 학대 예방교육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수원스토리G' 이야기를 담다



하와이안 훌라댄스 수업

11월 10일엔 광고호반마을 21단지에서 하와이안 훌라댄스 수업이 있었다. 훌라댄스를 추고 있던 강효정 씨는 "음악에 맞춰 복부를 움직이니 복부의 살이 빠지는 좋은 운동이다. 중년여성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과격하지 않은 운동으로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 오래 지속하면 복부가 날씬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조혜라 씨 또한 "훌라댄스를 통해 마음치유가 되고,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등이 사라진다. 멀리 안 가고 단지 내에서 춤을 추다보니 아파트 내 교류와 소통이 된다. 아파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환히 웃었다.



영트리오와 마담5060

영통 동보신명아파트의 '영트리오와 마담5060'은 기타를 연주하고 배우는 모임이다. 대표활동가인 정문희 씨는 "현재 기타동아리는 매주 일요일에 모여 기타연습을 하고 있다. 도시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음악으로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해소하고 정화하고 있다. 연령대가 중년이다 보니 즐길 거리가 별로 없는데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 공간실험

기존의 도시 자원을 활용한 공간실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동 주체가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시민주도형 프로젝트다. 공간을 매개로 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체의 역량 강화와 인문적 상상력 확장, 기존 도시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옛 서울 농생대 부속 실험목장의 트렌치 사이로(현 실험공간 I)를 지역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지역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단체, 놀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았다.

초등학교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공간놀이단을 구성하여 공간을 경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지역 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공간으로 구현하였다.



상상놀이터 워크숍

9월의 어느 주말, 실험목장 AGIT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문화도시 수원 <어린이 공간놀이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었다. 이 곳에서는 어린이가 지역 재생공간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극활동으로 '거울나라의 앨리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거울로 신체부위의 달린 모습을 관찰하고, 그 모습에 맞는 움직임 활동을 진행하였다. 어린이들은 거울나라에서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여왕의 미션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시각예술 활동으로 '액자 만들기'도 이어졌다. 다양한 색깔을 마음껏 칠해보고 색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즉흥적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작품을 선택하여 액자로 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무용 활동으로는 '미션 미로'가 진행되었다. 공간을 탐색하며 시작점과 도착점을 설정하여 어린이들이 놀고 싶은 대로 미로공간을 만들어보는 활동이었다. 어린이들이 직접 상상의 미로공간을 만들고 그 안의 움직임 방법과 규칙도 직접 정하였다. 어린이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키워드: 디자인



공간 개관행사

워크숍에서 어린이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가의 공간 디자인 작업이 이어졌고, 디자인 결과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푸른지대창작센터의 박혜원 작가도 함께하였다. 박혜원 작가의 안내로 푸른지대창작센터 내부 공간을 탐방하며 예술가의 작업 공간과 작품 제작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공간 탐방 이후 디자인 작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어린이들은 디자인 시안을 살펴봄에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전달하였다.

어린이 공간놀이단의 마지막 행사인 개관행사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자리였다. 어린이들은 알록달록 온화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놀이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걷거나 빠른 걸음으로 움직여보고, 공을 활용한 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즐겼다. 놀이 활동을 마무리한 후 어린이 공간놀이단 수료식을 진행하여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픈스튜디오





## 플랜B 라이브러리 기획 운영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지역 내 도서관문화공간인 도서관, 작은도서관, 독립서점, 북카페 등의 색다른 변신을 위한 기획으로, 공간이 가진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탐색해보고 가능성을 확장해보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였다. 11월~12월에 걸쳐 지역 도서관문화공간의 활용에 대해 새롭게 참신한 플랜B를 가진 수원시 내 공간 사업자, 예술인 또는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본캐'의 소멸 '부캐'의 출현〉 시낭독 퍼포먼스는 11월 4일, 서른책방에서 열렸다. 참여자들이 본인의 '부캐'를 만들어, 현실에 부딪힌 꿈과 갑갑한 일상을 창의적이고 동시대적인 시낭독 형태로 재해석해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회자를 맡은 진행자는 “여섯, 일곱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소외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본캐'의 소멸 '부캐'의 출현〉  
시낭독 퍼포먼스





찰칵! 2021 나와 책 기념사진

'찰칵! 2021 나와 책 기념사진'은 11월 20일, 마그앤그래에서 진행되었다. 2021년 나와 함께한 책과 기념사진을 촬영 후,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 공유회 자리를 운영했다.



설치극 \_ Book Man [떠고 싶은 사람]

12월 2일, '오평'에서 진행된 설치극 'Book Man [떠고 싶은 사람]'은 작은 독립서점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노드라마형 무언극으로, 배우의 연기와 음악, 프로젝션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연을 펼쳤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미디어 트식으로 진행되는 실험극이다. 공연의 주제는 한 남성의 감정의 변화와 현실 인식이다." 라고 말하고, 영상 일을 한 이 모 씨는 "작업해 보니 재밌을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평에 진열돼 있는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고 말했다.



Chapter  
03

# 지역가치

더 깊은 이야기





# 인문도시 아카이브

'인문도시 아카이브'는 사라져가는 도시의 기록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기록을 자원화 및 자산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진행된 사업이다.



## 도시기록단 양성과정

인문도시 아카이브 1년차 사업인 도시기록단 양성과정은 지역기록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기록자를 모집 및 교육하여 기록생태계의 주체인 도시기록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인문도시 아카이브 도시기록단 양성과정'이 11월 25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참여자들은 총 11회에 걸친 커리큘럼에 따라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진 아카이빙을 통해 수원의 도시기록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아카이브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기획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아카이빙 교육의 경우는 기록을 위한 인터뷰 방법과 글쓰기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 등으로 기록에 대한 개념 및 수집 방법에 대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한 참가자는 "최근 신도시 개발로 하루아침에 옛 도시나 마을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면서, 아카이빙으로 도시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과정을 운영한 최서영 더페이퍼 대표는 "도시기록단 양성과정이 장기화된다면 수원의 새로운 기록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시기록단 양성과정 워크숍  
도시기록단 양성과정 수료식







## 조금 다른 도시여행

시민들이 생활권역별 특징과 주제별 자원을 직접 조사하여, 매력적인 도시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발굴된 콘텐츠는 인문도시 아카이브로 연계되어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공유 및 활용된다.

11월 한 달간 ‘숲멍 나멍’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당신은 모르는 팔딱산 이야기’, ‘〈정조의 길, 나의 길〉 수원화성 탐클래스 로컬투어’, ‘수퀴즈 온 더 블럭’, ‘수원 향교로 근대 문화유산 기행’, ‘느릿느릿 골목 책방 여행’까지 시민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6개의 도시여행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시민이 제안하는 도시여행 아이디어와 로컬투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존 수원 관광을 벗어난 ‘조금 다른 도시여행’을 발전시켜 도시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다양한 도시의 삶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느릿느릿 골목 책방 여행



수퀴즈 온 더 블럭



숲멍 나멍



# 로컬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

지역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창작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안에서 콘텐츠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지역 청년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로컬콘텐츠 창작활동과 직거래 문화장터 운영을 통해 수원만의 문화브랜드 구축을 도모하였다.



## 메이드 인 수원

메이드 인 수원은 지역의 특색이 담긴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을 통해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원만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수원에는 지역의 창작자와 브랜드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창작자와 브랜드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플랫폼의 첫 번째 콘텐츠로 지역의 창작자와 브랜드를 소개하는 매거진 '요새'를 발간하였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창작자(Makers)'라는 주제로 손으로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다섯 개 브랜드의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 직거래 문화장터 '수문장'

수문장이란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 생산자 간 협력 및 자원공유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를 뜻한다. 지역 예술가와 문화콘텐츠 생산자와 함께 6월과 10월 직거래 문화장터를 운영하였고, 행사 참여 주체 간 정기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6월 행사에서는 직거래 문화장터의 첫 시작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생산자와 예술가들이 함께 모이는 장(場)을 형성하였다. 로컬브랜드, 제로웨이스트, 농산물·원예, 수공예 등 31개의 브랜드의 콘텐츠를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유희 갤러리를 활용하여 지역 예술가 17인의 작품을 전시형태로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도 운영하였다. 또한, 재활용과 새활용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였다.



10월 행사에서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로컬콘텐츠의 확산과 생태가치 회복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로컬브랜드 20팀이 함께한 가운데 로컬콘텐츠를 구매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상점 49개소와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플라스틱 바이바이 프로젝트'도 진행하여 로컬브랜드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의 활동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간담회인 '문화도시 수원, 예술을 탐(耽)하다'도 개최되었다. 수원과 타 지역의 예술시장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신규 아이디어를 창출하였고, 커피브랜드 '탐앤탐스'와 향후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직거래 문화장터  
수문장 현장스케치





## 인문도시주간

인문적 실천, 실천적 인문을 탐색하고  
공유하는 축제형 성과공유회이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인문도시 수원의 브랜드를 만든다.



### 사전프로그램 '문화도시 실천실험'

2021.06.25(금) - 06.27(일)  
화성행궁 유여택, 교동 일대 등

인문도시주간 사전프로그램 '문화도시 실천실험'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화성행궁 유여택·남문로데오청소년문화공연장·교동 갤러리벨트 일대에서 개최했다. '문화도시 실천실험'은 예비단계인 문화도시 수원의 다양한 인문적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수원형 인문도시 대표브랜드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내 문화도시들과 함께하는 활동공유 및 네트워크 포럼인 '오! 경기 문화도시포럼'을 시작으로, 인문적 실천사례들을 음악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인문실천콘서트'를 이틀간 진행했다. 26일 첫 번째 콘서트에서는 '대화에서 실천까지'라는 주제로 상상이 이야기가 되고 현실이 되는 과정들을 공유했다. 27일에는 '공간에 색을 입히는 실험활동'들을 소개하며, 주변의 여러 공간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장기간 방치된 구도심의 전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수원형 공공예술 실험 '교동예술실험단'이 있으며, 로컬 콘텐츠의 공유 및 판매를 위한 '직거래 문화장터, 수문장'도 함께 진행했다. 2021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홍보하는 '문화도시수원 사용설명서'와 수원 생활예술인들의 활동 공유 버스킹 공연인 '도시공감 버스킹' 등 다양한 정보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사전프로그램>  
인문실천 공유회





### 본프로그램 '만남과 마주침, 서로를 바라봄'

2021.10.25(월)~ 10.31(일)  
수원시 곳곳, 온라인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1 인문도시주간'을 문화도시 동행공간 20개소를 포함한 수원시 곳곳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들과의 '만남과 마주침, 서로를 바라보는' 계기를 확대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했으며, 사전·본프로그램을 통해 약 4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사전 프로그램>  
문화도시 사용설명서



<사전 프로그램>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 수문장'

<사전 프로그램>  
도시공감 버스킹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120만의 대도시, 각기 다른 수원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마주침으로써 다양한 삶의 무늬를 발견하고 존중하며 서로 걸을 내어주는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의 의미를 담은 슬로건, '만남과 마주침, 서로를 바라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으로는 '오! 인문도시포럼'이 이틀간 진행됐고, 외면했던 도시와 시민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동료 이웃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10월 29일, 첫 번째 포럼에서는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30일에는 '낮설고도 친밀한 수원을 탐구하다'와 '문제에 맞서는 수원의 시민력'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이 외에도 수원의 로컬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직거래 문화장터, 수문장', 도시의 삶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흥미로운 생각들을 시민, 예술가가 함께 담아낸 전시 프로그램인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도시가 가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강연, 투어, 공연으로 풀어낸 '워킹그룹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  
오! 인문도시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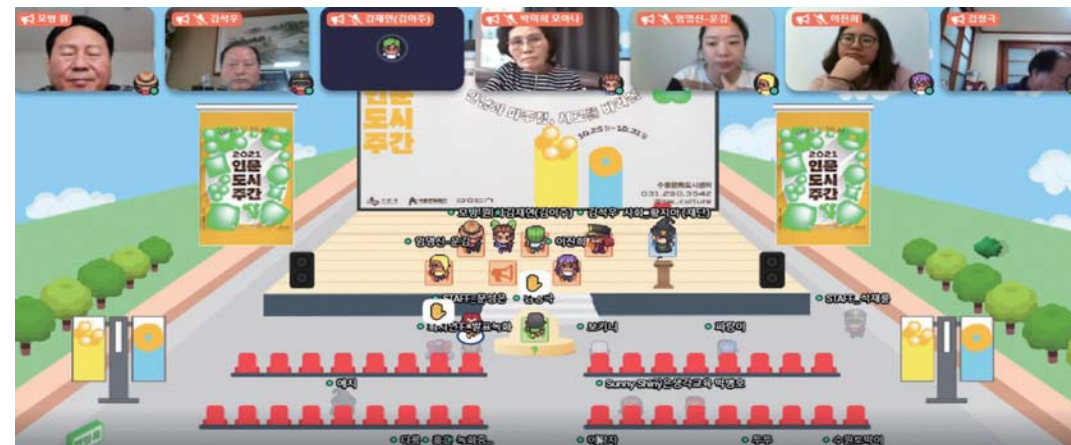


<본프로그램>  
웹툰 '나우와 어스가 간다'

오프라인으로는 청년과 지역, 학부모와 자녀 돌봄, 여성과 평등, 청소년과 학교, 노인 과 가족, 이주민과 다문화 등 일상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동행공간 주간 프로그램'이 있었다. 2021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홍보하는 '문화도시수원 사용설명서'와 수원의 대표 명소 '수원 화성'을 지동아트포라 입주작가의 감성으로 해석한 전시 프로그램 '수원화성:스며들다 展', 수원시 내 문화공간의 각 특성에 맞는 시민대상 생활문화 특화프로그램 '생활문화 공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인문실천'의 사례와 이야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파티인 '인문실천공유회'와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각 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성과공유회 '문화도시 열린대화방'이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진행됐다. 화상회의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의 장점을 살려, 단순히 듣는 행사가 아닌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다. 전문가와 공간 운영자, 문화기획자, 예술가, 지역 활동가, 로컬 크리에이터, 시민 등의 참가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하였다. 인문실천공유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인문실천공유회 질문왕, SNS 참여 인증하기, 보물 '수원이'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게더타운에서 진행했다.

<본프로그램>  
열린대화방·인문실천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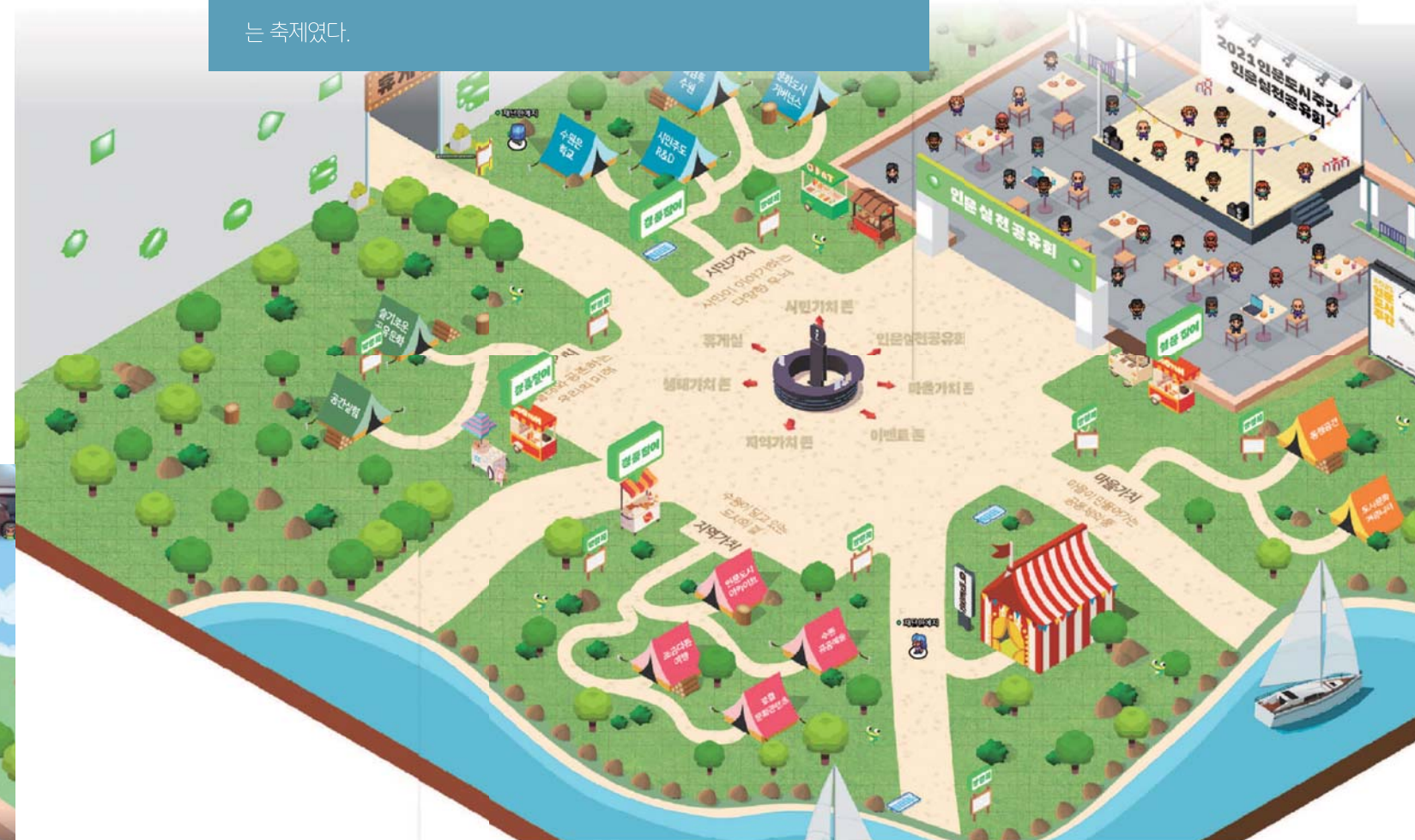


게더타운 외의 온라인 채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ZOOM을 통해 실험목장 AGIT에서 진행된 생태문화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배달형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작소 체험배달'과 수원문화재단 SNS에서 인문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웹툰 콘텐츠 '나우와 어스가 간다'로 다양한 정보와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오! 인문도시포럼이 쏜다'부터 동행공간 스탬프 투어, 수문장 스탬프 투어 등 이벤트도 있어 인문도시주년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었다.

'인문도시주간'에 펼쳐진 수많은 문화행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적 삶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축제의 주인공인 다양한 수원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이야기가 오고 가는 축제였다.



<본프로그램>  
문화공작소 체험배달





## 수원공공예술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시민들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와 욕구를 말하고,  
예술가는 전달자가 되어  
도시의 언어를 해석하여  
확산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이다.

## 교동예술 실험단

수원형 공공예술실험 사전프로그램 '교동예술실험단展'을 6월 25일부터 7월 25일  
까지 교동갤러리벨트에서 개최했다. '교동예술실험단'은 문화도시 수원의 인문적 가  
치와 방향을 어떻게 예술 언어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인 '수원  
형 공공예술실험'의 사전프로그램이다.



### 전시 개요

#### 수원공공예술 사전프로그램 '교동예술실험단'

- 전시기간 : 2021.06.25.(금) ~ 07.25.(일)

- 전시장소 : 교동갤러리벨트

(남문로데오갤러리~로데오갤러리특별관~스트리트갤러리~  
가족여성회관 한전지중박스)

- 참여작가 및 작업

작가명	작업명	전시장소
조성훈	해적판	
이태강	안개섬	남문로데오갤러리
정호선	매교담구생활	
현예름	초록사이로 하얀	로데오갤러리특별관
김민지	호러플라이	
박수환	붉은아파트	
김혜란	나를 찾아줘	스트리트갤러리
서현덕	Sanctuary	
김보람	다시 돌아온 오늘	수원시가족여성회관
하유준	있다	한전지중박스





‘교동갤러리벨트’는 남문로데오갤러리·로데오갤러리특별관·스트리트갤러리 등 3개의 윈도우갤러리와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앞 한전지중박스의 옥외광고매체를 잇는 전시공간이다. 윈도우갤러리는 2013년 조성되어 전시공간으로 운영되었으나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오랜시간 방치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적어진 상황에서, 윈도우갤러리의 중요성을 발견한 한 지역예술가의 제안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골목 전시공간으로 교동갤러리벨트가 구성되었다.

수원향교, 부국원 등 문화유산을 끼고 있는 오래된 동네 교동의 풍경에 새로운 예술실험을 함께할 주체로 MZ세대 20-30대 청년작가에 주목했고, 10명의 작가들은 도시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의제와 공간을 중심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전시와 관련하여 6월 25일 청누리에서 공공예술 경험이 있는 예술가와 기획자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도시’라는 주제 속에서 수원형 공공예술의 의미와 도시·예술가의 관계 모색을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문화재단 DMZ아트프로젝트 전시감독 김종길 씨의 사회로 펼쳐진 이 자리엔 박찬국 작가, 최재혁 소미미술관 큐레이터, 김가연 사회적 기업 ‘유쾌한’ 매니저, 서현덕 예술실험 참여작가, 지역전문가 3인-이영길(수원예총), 신승녀(수원민미협), 이윤숙(대안공간 눈) 등이 참석했다.

도슨트투어



# 도시 예술 ; 총;동

수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총;동 예술총;동’이 10월 23일부터 11월 07일까지 청려원갤러리 및 교동 일대에서 개최됐다. ‘도시총;동 예술총;동’은 수원의 정기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첫 시작으로 상이한 도시의 조건을 넘어 도시의 삶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흥미로운 생각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시민으로부터 수원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를 듣고 아티스트가 직접 수원 곳곳을 리서치한 뒤, 그 흥미로운 시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도시충;동 예술충;동’ 프로젝트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공유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청려원갤러리와 교동 일대의 상가들에서 아티스트의 작업을 보여줬다. 청려원 갤러리에서는 수원 시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리서치 기반의 작업이 전시가 되었으며, 교동 일대에서는 지역 내 상가와 협업하여 리서치 작업과 수원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아티스트의 작업이 전시가 되었다. 온라인에서는 프로젝트의 준비과정과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프로젝트를 감상할 수 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도슨트 투어와 포럼 ‘그래, 지금은 듣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도슨트 투어는 교동 곳곳에서 전시 중인 작가들의 작업을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기간 중 매주 금·토·일 오후1시와 3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되었다. 포럼 ‘그래, 지금은 듣는 시간’은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아트블랑켓에서 진행되었다. 박찬국 예술감독의 사회로 김종길 DMZ아트프로젝트 전시감독, 신은진 신자유디렉터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 김도형 도시충동단, 김월식 참여작가가 종합토론자로 저마다의 관점을 담아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 전시 개요

####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 전시기간 : 2021.10.23.(금) ~ 11.07.(일)
- 전시장소 : 교동일대 및 청려원갤러리
- 참여작가 및 작업

작가명	작업명	전시장소
김형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환상	
박김형준	서수원 걷기 지도 / 비행기 소음 지도	
윤영욱	예정된 도시 / 침범된 도시	청려원 갤러리
땅도프로덕션 (류승진, 윤혁)	장안공원 / 도시언어	
현지윤	청년을 위한 / 노인을위한	
라이스브루잉시스터즈클럽 (손혜민, 신현진, 유소윤)	사회적발효 컬트	교동일대
손한샘	Shrine	팔달문관광안내소앞 공터
웁쓰양	협동운동	
이끼바위쿠르르 (조지은, 고결, 김중원)	수원	소유집
준박&최리운	_____를 찾습니다	아이엠밀크
김월식	죽은유산이 산사람을 내문, 우리동네 벽화 미워	아트블랑켓
이태강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수원시립중앙도서관
서현덕	Sanctuary	노스목위닷파
진 인이 나라	살갓과 살갓	마포생고기



Chapter

04

# 생태가치





# 도시 내 생생문화 플랫폼

일상 속 생태문화 탐구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자 서수원 권역의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리빙랩을 운영하였다.



## 수원형 리빙랩: 생태교통마을

리빙랩 사업은 가설, 연구, 조사, 숙의, 기획의 단계적 진행을 통해 향후 사업의 토대를 만들고, 지역 시민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도시 협력 파트너로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 수원 사회적 협동조합 '수원행'의 기획과 실행으로 진행된 '수원형 리빙랩 : 생태교통마을'은 지속되는 행궁동 내의 주차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자전거 타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모임을 통해 수원 지역의 자전거 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맵핑 지도를 제작, 행궁동 내에서 라이딩 모임을 갖는 청소년들과 협업하여 굿즈도 제작하였다. 또한, 향후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축제를 기획하였다. 자전거 라이딩은 행궁동 골목, 장안문, 화홍문과 수원천, 화성여차(연무대 또는 그 외 지역), 화성행궁 광장, 팔달산, 서장대 순으로 진행하였다. 자전거를 탄 참여자들은 좁은 골목과 넓은 잔디밭을 지나고, 푸른 하늘 아래 단풍이 곱게 물든 성곽길을 달리며 신나는 묘기도 보여주었다.





## 월간공간실험

문화도시 수원의 생태문화 거점공간인 실험목장 AGIT에서 생태 가치에 주목한 다양한 실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공간 기반의 주도적 활동주체인 '공간실험단'이 직접 기획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간의 활성화에 도모하고 공간 기반의 워킹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어 체험 꾸러미를 통해 집에서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구분	일정	프로그램명	내용	기획자(소개)
	6.19(토), 7.3(토) 10:30~12:00	자연 그대로의 쪽	실험목장 AGIT에서 직접 쪽풀을 길러보며 생태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기른 쪽풀을 수확하여 천연염색 체험을 해보는 프로젝트	박영아 인권·자연 친화적 제품 생산 및 교육을 진행하는 기획자
	7.3(토), 10(토) 13:00~15:00	실험목장 AGIT 폐어구를 재활용한 버드 피더 설치 프로젝트	폐어구를 재활용하여 버드 피더를 제작하고 시민농장 참여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 씨앗 등을 모이로 제공하여 버드 피딩 활동 진행	서현덕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지역 예술가
대 면	7.3(토), 4(일) 15:00~17:00	향기나는 미술관 피크닉	에바 알버슨의 그림을 모티브로 하여 실험목장 AGIT에서 수집한 자연물로 자신을 표현해보는 프로젝트	김민지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
	7.4(일), 11(일) 10:00~12:00	버려진 책, 조각난 이야기	낡고 오래되어 쓸모를 잃고 버려진 책에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을 더해 새로운 형태의 문학예술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	소울크로싱 스토리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스토리 창작 그룹
	7.10(토) 10:00~12:00 7.11(일) 13:00~15:00	대농고 자연 관찰하기	실험목장 AGIT 일대를 습식 수채화로 표현해보고, 자연물을 풍경 거울 드로잉으로 그려보는 프로젝트	김예령 문화예술 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역할에 관심이 많은 지역 예술가
	8.13(금) 10:00~12:00	끈끈한 사이	색색의 끈을 연결하여 공간에 새로운 색을 입히고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예술교육창작터 달집 무용, 시각예술 기반의 어린이 예술교육을 연구, 실행하는 단체
비 대 면	8~9월	우리의 신비로운 보물창고	실험목장 AGIT 일대를 자율적으로 둘러보며 플레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가상의 실험목장 AGIT' 모바일 어플 제작 및 배포	tARTe(타르트) 예술을 통한 소통을 꿈꾸는 기획자 그룹
	8.16(월), 18(수), 20(금) 19:00~20:00	보이지 않는 것의 비밀	우리집을 '새로운 시공간'으로 변화시키고 퍼퓸 플레이 페인팅 진행을 통해 자유로운 나를 만나고 일상에 향을 더해보는 프로젝트	김재연(J.LUR) 향기의 예술화로 재미와 가치를 선물하는 퍼퓸 아티스트



자연 그대로의 쪽



실험목장 AGIT  
페어구를 재활용한  
버드 피더 설치 프로젝트



향기나는  
미술관 피크닉



버려진 책,  
조각난 이야기







대농고 자연 관찰하기



끈끈한 사이







202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수원 아카이브 수원스토리 G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 ‘수원스토리G’ 이야기를 담다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인쇄일 2021년 12월 24일  
발행일 2021년 12월 24일  
제작 다운프로덕션  
디자인·인쇄 신원커뮤니케이션